

완도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탄력 붙는다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범 해양치유 효능... 3만명 다녀가 수협중앙회와 해양치유 홍보 직원 복지 증진 등 협력키로

해양치유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출범한 가운데 완도군은 기관·단체와 업무 협약을 연이어 체결하며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3일 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및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은 수협중앙회 접견실에서 진행됐으며, 신우철 완도군수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치유산업 홍보 △수협중앙회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



완도군과 수협중앙회가 지난 23일 수협중앙회에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와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해양치유 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 워크숍, 교육, 회의 등 장소활용 협력 △해양치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등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3만 명이 넘게 해양치유 센터를 찾았으며 건강을 위해 정기적으

로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인 완도군은 수협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미래 해양산업의 선두

주자인 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양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한 해양치유 시설로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 시설을 갖췄으며,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힐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3인 이상 가족은 30%, 전남도민과 10인 이상 단체는 20%, 전남 사랑애서포터즈는 10%의 이용료를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용한 후 주요 관광지인 완도타워와 장보고기념관을 찾으면 무료 관람이 가능하며, 완도타워 모노레일(2000원), 짚라인(3000원), 청해포구 촬영장(20%)은 이용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해양치유센터 이용객(군민 제외)을 대상으로 음식점 할인 쿠폰(1인당 1만 원)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 송호해수욕장 인기 버스킹·모래조각 전시회 등

해남군 송호해수욕장이 지난 12일 개장한 가운데 쉽고 낭만이 있는 여름 휴양지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망갈마을과 인접한 송호해수욕장은 해남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해변가의 수백년된 노송림과 호수와 같은 잔잔한 물결이 아름다운 곳이다. 모래가 곱고 수심이 얕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으며 해변을 따라 해수욕이 길게 이어져 있어 야영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특히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는 송호해변 여름축제가 열려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 및 체험, 수상레저 프로그램, 낭만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과 플라이보드와 해변 보트 체험, 우리가족 모래조각 만들기 등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돼 인기를 끌었다.

송호해수욕장 인근에는 5분여 거리에 위치한 국도 최남단 망갈마을 전망대와 망갈담,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망갈오도 캠핑장, 황토나타테마촌, 망갈해양자연사박물관, 세계의 망갈공원 등 해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로 꼽히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서 바둑대회 열린다 국수산맥·국제청소년 대회 등

제10회 국수산맥 바둑대회가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전남에서 열릴 예정된 가운데 국제청소년바둑대축제가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회는 전남도와 강진군, 영암군, 신안군, 전남도교육청이 공동 후원하고, 한국기원과 전남도바둑협회가 공동 주관해 추진된다.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는 강진의 김인, 영암의 조훈현, 신안의 이세돌 등 3대 국수를 배출한 전남도가 바둑의 본고장임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한 대회이며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국제청소년바둑대축제가 열리는 이틀간 강진제1실내체육관에서는 국내 청소년 선수 340명과 중국, 태국, 과테말라, 미국 등에서 출전을 희망한 160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승부를 겨룰 예정이다.

토요일에는 전남 청소년 대외국 청소년 교류전이, 일요일에는 전국 청소년 대외국 청소년 교류전이 진행된다.

전국 청소년 대회 본선전과 강진군 바둑협회의 동호인 대회도 함께 운영된다. 선수 학부모를 포함해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8월 첫 주말동안 강진군을 방문, 숙박 시설 및 음식점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신안에서는 전국 여성, 전남 동호인 아마바둑대회가 진행되며 10주년을 맞아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외국인 아마 바둑인을 초청한 특별 이벤트 대국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세계프로최강전은 영암에서 4일간 개최되며 한, 중, 일, 대만의 정상급 기사 16명이 출전해 열 번째 우승자를 가린다.

강진=김윤복 기자

K-pop댄스 프로그램 운영 무안 남악청소년문화의집

무안군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16일부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와 '우쿨렐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K-pop댄스 프로그램은 멋진 안무를 배우며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지난 방과 후 운영에서 큰 호응을 받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추가 운영하게 되었다.

우쿨렐레 프로그램은 우아하고 매력적인 우쿨렐레의 다채로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새로운 예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프로그램은 4주간 진행되며 추가 정보나 신청 방법은 남악청소년문화의집의 공식 SNS(인스타그램,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김행민 기자

영암 인문 캘리그래피 공모전 최우수상에 구민재 작가

영암군이 지난 24일 군청에서 '제1회 영암 인문 캘리그래피 전국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15개 수상작에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영암군의 유·무형 역사 문화자산을 캘리그래피 작품으로 홍보하기 위해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에서 총 126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1차 예비심사를 통과한 75점을 최종 심사해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입선 9 수상작을 선정했다.

중주의 구민재 작가는 '달빛생태도시 영암' 글씨 주변에 노란색 달과 녹색 잎, 파란색의 강을 표현한 작품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는 "공모전을 통해 영암과 월출산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고, 캘리그래피로 표현했다. 지인들에게 내가 느낀 영암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공모전 수상작은 현재 영암군청 본관 2층 복도에 전시돼 있고, 이후 2차 저작물 제작하고, 각종 축제에서도 전시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 이용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공방교실과 체육교실을 운영했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드림스타트, 리틀공방공예·체육교실 운영

진도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 이용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공방교실과 체육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사업은 평소 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진도 옥주골 창작소에서 수공예품 만들기과 진도볼링장을 방문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했다.

첫 번째로 리틀공방공예교실은 진도사

또(사장님들 또만났네)에서 후원을 받아 자개 모빌 만들기를 진행했다. 아동들은 수공예품 만드는 법을 배우고 정해진 시간에 각자 최선을 다해 만든 완성품을 친구들과 비교해 보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동들이 만든 작품은 진도 옥주골작장소 내 전시실에 약 한 달간 전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체육교실은 진도체육회의 도움을 받아 볼링교실에 참여하였으며, 담당 선생님의 안전교육과 볼링에 대한 기초 교육(자세, 진행방법 등)을 받고 진행하였다. 아동들은 정해진 레인에서 볼링공을 굴려 핀을 쓰러뜨리는 스티를 경험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과 함께 하루 동안 다양한 체험을 하니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라고 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군, 과천 바로마켓 직거래장터서 '반값 여행+한우' 홍보

강진군이 한우 생산비 증가 및 소득감소로 침체된 한우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강진 한우' 홍보 활동에 나섰다.

강진군과 강진완도축협은 지난 24일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 바로마켓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강진 한우 이동 할인판 매 행사를 실시하면서 장터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반값 강진여행'과 함께 '강진 한우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군은 이번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힘을 합쳐, 매월 2회 이상 대도시 이동판매를 추진하고, 더불어 소비촉진 홍보 행사도 정기적으로 실

시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 한우를 구매한 관외 지역 고객 2000명을 대상으로 반값 강진여행과 연계한 강진 한우 구매 안내를 추진, 반값 여행+강진 한우 판매시스템을 구축한다. '누구라도 반값+강진 여행'은 강진에서 소비한 여행 비용의 50%를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가족 단위에서 1인 여행자, 친구, 연인, 지인, 동호회 등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했다.

관외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 당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산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고 있

는 '착'(Chak) 어플을 통해 당일 또는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가맹된 강진 관내 모든 상가에서 현장 사용이 가능하며, 강진을 떠나더라도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강진 한우 등 농특산물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 여행 시책을 통해 강진 한우 등 우리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 강진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한우 사육 농가들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